

# 복합쇼핑몰 일대 교통 '도시철도·BRT·트램' 무엇이 좋을까

〈간선급행버스〉

### 광주시, 광천동~임동 일대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결책 고심 만능 대책 없고 시기도 늦어... 선택따라 지역사회 갈등 우려

광주시가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는 광천동 일대의 교통난 해소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트램(Tram-레일 위 노면전차)'을 추진했다가 지하철로 선택 한 뒤 다시 트램을 잠시 검토하더니, 최종적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만지작거리려는 모양새다.

광주시 안팎에선 오는 2028년 대형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와 신축 확장형인 '신세계백화점'이 동시 개장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교통 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미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휴일엔 교통 정체가 심각한 광천사거리·임동 일대에 오는 2028년 대형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와 신축 확장형인 '신세계백화점'이 동시 개장하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차량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현재 광천동 일대에 수천 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내에도 특급호텔과 4000여세대 규모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을 넘어 교통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올 들어 이 같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무역, 시청, 기아 오토랜드, 터미널, 전방-일신방직 부지, KIA 챔피언스 필드 인근, 광주역 등을 잇는 7.8km 구간에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궁극적인 답변까지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 도시철도에 투입해야 하는 막대한 공사비와 유지비 등이 광주시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철도는 지상 도로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체계이긴 하지만, 7.8km 구간에 최소 64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례처럼 착공 이후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개통 후 이용객 저조 시 적자운영까지 감당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트램은 도시철도의 장점인 친환경성과 버스의 장점인 접근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도 도시철도·경전철 대비 30~50% 수준에 불과하고, 관광자원 효과 유달 등 장점도 다양하다.

하지만 트램 역시 기존도로 2~4차로를 점유해야 하는 탓에 교통난 해소는커녕 교통난 유발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 건설비가 2020년 기준 km당 300억원대에서 현재 500억원대까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광주시는 최근들어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으로 방향을 급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T는 버스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수용량은 도시철도에 비해 적지만 저렴한 건설비 등이 최강점으로 꼽힌다.

해당 구간에 BRT를 도입할 경우 추정 공사비는 500억원 안팎이며, 이는 복합쇼핑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으로도 부담 없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오는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 예정인 백운광장~북구 건국동 광주희망병원 구간(10.3km) 도심 BRT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BRT도 도시철도와 트램처럼 장·단점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RT 역시 트램처럼 기존 도로를 활용해야 하고, 소용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단점 등으로 광천동 일대 교통난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이 같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광천동 일대 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각 교통체계마다 장단점이 뚜렷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역사회의 찬반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관련 TF를 구성하고 도시철도와 BRT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尹 "인명 수색 총력"...정부 "화성 공장참사 피해지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러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가량 화재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김

대변인이 추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며 "소방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와 결정된 내용을 설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 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 의총 추진...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특검법 등 놓고 여야 파열음 클 듯

원 구성을 놓고 파열을 빚어온 제22대 국회 한 달여만에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24일 의원 총회를 열어 여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찬반을 물어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독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현실론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빚으면서 '반쪽 국회'로 운영되는 부정적 시각에 따라 집권 여당이 '민생 국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부담도 등을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외교통일·국방·기

획정·정부·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온 '의회 보이콧'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당 없이 '반쪽'으로 시작된 제 22대 국회가 이르면 이달 말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법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는 운영위별로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각각 본회의와 법사위로 넘긴 상태여서 이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다"고 말했다.

또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치열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착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